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전 유치 '도전'

익산시, 전국 규모 체육대회
치르며 갖춘 기반시설 등
장점 살려 유치전 뛰어들어

유치 성공시 인구 증대와 함께
연간 200억원 규모 경제유발

익산시가 최적의 교통환경, 뛰어난 정주여건 등을 앞세워 대한장애인체육회 유치를 나섰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익산으로 이전하면 인구 증대는 물론 연간 200억원 규모의 경제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다양한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치르며 갖춰놓은 기반시설과 편리한 교통망, 정주여건 등의 장점을 살려 수도권에 위치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이번 유치전에서 익산시의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전국체전 등을 치르며 기존에 구축된 경기 시설과 인프라이다. 이를 활용해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전개해 체육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익산역에서 KTX로 서울까지 1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의 교통환경과 앞으로 순차적으로 공급될 1만여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편리한 정주여건 등을 내세워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본원과 훈련원 32개 경기단체까지 3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전이 성공적으로 성사되면 가족까지 약 1,000여명의 인구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익산시를 방문하거나 각종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등을 통해 연간 2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역 주민 간 협업으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농특산물 공급 등을 추진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다양한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치르며 갖춰놓은 기반시설과 편리한 교통망, 정주여건 등의 장점을 살려 수도권에 위치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사진=익산시청 제공)

정현을 시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익산으로 이전하면 생활체육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잘 갖춰진 체육 인프라와 교통망, 정주여건 등을 활용해 이번 유치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정부의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역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한 강점을 바탕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이전 유치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체육진흥과를 중심으로 관련 단체와 이천훈련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익산=정양원 기자



이한빛, 아시아시니어
레슬링 선수권 3위

완주군청 레슬링 이한빛 선수가 아시아 시니어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20일 완주군은 여자자유형 65kg급 여자 레슬링 국가대표 이한빛 선수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2021년 아시아시니어선수권대회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인도 선수와의 준결승전에서 경기 도중 무릎 부상을 당해 아쉽게 패하였으나 3.4위전에서 부상부진을 발휘해 태국선수를 이기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한빛 선수는 지난 10일 아시아태권도 대회에서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는 데에는 실패하였으나 이번 아시아선수권 대회에서 3위라는 성적을 거두며 완주군의 위상을 높였다.

이한빛 선수는 귀국한 뒤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치고 부상 치료 후 팀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증진 '맞손'

도 장애인체육회-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협약 체결

전북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노경일)는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지사장 김정대)와 장애인체육 선수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체육선수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운동과 생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장애인 체육선수 채용은 기업의 실업팀 형태(직장운동부)로 고용해 장애인 선수가 안정적으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및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전북장애인체육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는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을 희망하는 지역 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이미지에 적합한 전문선수 추천, 훈련 등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확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대 지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경제적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노경일 사무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일자리 창출에 막혀 있던 벽을 허물기 위해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내달 2일까지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강사 교육' 온라인 진행

전북체육회는 지도자들의 자질 향상 및 사업의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달 2일까지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강사 교육'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강사 280여명으로 교육과정은 신나는주말체육학교 운영의 실제, 성 범죄 예방, 스포츠상해교육(응급처치), 스포츠 윤리, 인성교육, 안전교육 등 맞춤형 지도에 필요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사업은 학생들의 여가 선용 지원과 체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강사(지도자)가 학교 인과 학교 밖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이다.

이에 도내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는 매주 주말(토·일) 강사들이 학교(154곳)를 찾아 축구와 탁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학교 안 프로그램을 지도한다.

또한 볼링과 승마, 골프 등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종목을 다루는 학교 밖 프로그램은 도내 14개 시·군 81개소와 11개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진행된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강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말체육학교의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 진행된다"며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을 증진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